

#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304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1. 5. 28(금) 14:00~19:16
- 장 소 : 화상회의
- 출석위원 : 박종관      위원장  
              박경주      위원  
              유은선      위원  
              이시백      위원  
              이원재      위원  
              장인주      위원  
              전고필      위원  
              정유란      위원  
              정정숙      위원  
              정종열      위원  
              홍태림      위원

## 1. 성원 보고

**박종관 위원장** : 제304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는 성원 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위원장님과 현재 9인의 위원께서 참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시백 위원님께서 10분 정도 후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진희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 하십니다. 현재 총 12인 위원 중에서 10인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 2. 개회 선언

**박종관 위원장** : 방금 사무처장직무대행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과 같이 성원이 되었습니다. 이시백 위원님께서 10분 정도 후에 접속하신다고 하면 먼저 개회를 한 이후에 이시백 위원님께서 자연스럽게 참석하여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전차(前次)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는 회의자료 3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03차 전체회의에서 6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의결 처리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전차(前次) 회의와 관련한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고를 접수 받도록 하고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의결사항

**박종관 위원장** : 오늘 2022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6개의 의결안건이 올라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고안건은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지원심의 결정의 건을 비롯한 8개의 보고안건과 논의사항으로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은 202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을 포함하여 6개의 의결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첫 번째 의결안건인 202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안건번호 제879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당시 진행사항을 보고 드렸고 그 이후 문체부와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고 문체부 차원의 조정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조정된 금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코로나19 조기 회복을 위한 안정적 창작환경 강화를 위해서 문학 분야와 시각예술창작육성에 대한 집중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학창작육성과 시각예술창작육성에 있어서 18억 정도씩 예술창작지원에 대한 증액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민-관 협치 기반의 문화예술정책 개발 정책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기존에 정책개발 연구 관리에 집중되었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서 예술현장을 포함한 대내외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운영방식으로 개편하면서 온라인공론장이나 정책개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전환에 발맞춰 예술기록 디지털 콘텐츠화 확대를 위해서 예술기록원의 예산을 17억 9,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향유와 관련해서 포용적 복지정책을 위한 예산의 의미를 갖는 통합문화이용권은 2021년도 1,260억 대비 2022년도에는 1,471억으로 현재 210억 정도 증액이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계획 총괄표의 합계를 보면 2021년 규모가 5,239억 원에서 2022년도에는 5,411억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아래 사업비를 보시면 7개의 세부사업들이 있는데 예술창작지원부터 인력육성,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대한 증감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9쪽을 보시면 각 세부사업별로 예술창작지원의 문학창작육성으로 어떤 증감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2021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쪽과 10쪽, 11쪽, 12쪽은 그런 세부사업별 예산의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중기재정계획수립 때부터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들은 별도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을 5월에 제출하게 되면 6월부터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문체부까지는 통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재부와 설명을 통해서 정부안을 확정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문예진흥기금(안)을 확정하여 제출하는 권한과 결정된 문예진흥기금을 관리·운영하는 기능입니다. 적립금을 관리하는 기능 역시 주요한 기능이 아닐 수 없다고 할 것인데요. 예산이라는 것이 문화예술계의 대표자로서는 수많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거꾸로 모든 예술위원회의 사업이 예산에 종속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을 위원님들께서 모두 하실 텐데요.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문체부, 기재부와 협의를 하면서 예산들이 가·감 삭제되어 올해 연말이 되어서 확정이 되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충분한 의견을 내어주시고 부족하다면 예산 관련 부서에 언제라도 문의하시고 의견을 주셔서 전반적으로 202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에 기여하도록 하는 전략이 어떻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홍태림 위원 :** 2022년도 기초예술다양성증진 예산안이 10억 원 그대로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저희가 중기계획(안)을 몇 달 전에 봤을 때는 22억 원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부처(안)으로 되어 있고 2021년 대비 주요 증감내용과 관련해서 따로 적혀 있는 내용이 없어서요. 이렇게 조정이 된 게 어떤 상황 때문인지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 이후 단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은 기존 10억 원에 22억 원을 얹어서 증액을 신청 했습니다. 증액신청 후에 부처(안) 편성과과정에서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공모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처(안)에서는 증액이 되지 못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을 하시죠.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이게 부처(안)에서는 빠져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차 심의가 있고 소액심의를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은 선정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어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은 기재부 심의과정이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문화부 부처(안)에서는 우선순위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아마 홍태림 위원님의 지적은 기초예술다양성증진사업의 중요성과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살피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의결을 시켜놓고 언제라도, 이 예산이라는 것은 자세하게 봐도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이원재 위원 :** 질문을 해도 될까요?

**박종관 위원장 :** 이원재 위원님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경륜·경정 수익금 배분액이 완전 순감된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수익금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륜·경정 수익금에 대해서 전입을 해 줄 수가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경륜·경정 수익금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입장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부족분만큼 더 전입을 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시 정리를 하자면 수입부분에 있어서 “경륜·경정과 관련된 부분이 왜 없는가?”라고 물으셨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속적으로 대체자원과 관련된 부분을 요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언제라도 위원님들께서 담당부서인 기획조정부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개진해서 사업(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할까 하는데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가 없고 모두 동의를 하셨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두 번째 의결안건은 2021년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지원 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본 의결안건은 조미숙 문화예술후원센터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사전의견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고 답변까지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숙 부장님 어디에 계세요? 나주본사에 계시는데 화면이 안 나옵니다. 조미숙 부장님 준비가 안 되었나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지금 나주 본관 중회의실에서 보고 대기 중이나, 오디오가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잠시 대기를 하고 라인테스트를 한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상회의 오디오시스템 점검)

**박종관 위원장** :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번호로 정리를 하자면, 안건번호 제 880호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지원 사업 추진계획(안)과 제881호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은 연결상태를 점검한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고 안건번호 제882호 2021년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사업 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예, 안전번호 제882호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 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공모로 지난 5월 13일에 심의계획이 수립되었고요. 사업목적은 청년예술가의 국제무대 진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 및 교류활동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예술분야 국제교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만 39세 이하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전문가입니다. 사업내용은 프로젝트 기획, 사전 네트워크 구축 등 준비과정과 청년예술가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최대 3,000만 원까지 직접경비를 지원하게 되고요. 사업예산은 총 5억 2,300만 원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지원신청 접수는 4월 7일까지 받았고 총 5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의위원의 명단은 63페이지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총 7인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원심의회회는 5월 24일과 5월 25일 양일 간 줌을 전원 인터뷰심의로 진행을 하였고요. 심의위원들의 전수검토제도 역시 실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심의기준은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실현가능성 40%, 사업내용의 예술성 40%, 사업계획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20%의 채점으로 진행되었고요. (다)번의 지원심의 결과 총 59건 중에서 결격인 2건을 제외한 총 57건에 대한 지원심의를 통해서 27건으로 지원결정비율은 45.7%였고 5억 2,300만 원 전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잔여예산은 없고 후보순위로 3인의 후보자를 선정했습니다. 오늘 심의·의결이 되면 6월 2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별도공모로 진행되었고 이 사업은 국제교류부에서 저희 예술인력양성부로 이관되면서 사업이 늦어졌기 때문에 서둘러 발표해서 빠른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전은 사업규모와 총사업비와는 상관없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류지원사업이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새롭게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라서 크기에 비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의견을 주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면 원장과 본부장이 대기하고 있으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서류를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고필 위원** : 미래인력이나 활동하는 인력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에서 유사한 사업이 광주비엔날레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인력양성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보여 지는 것이지만 우수하고 젊은 인력들을 뽑은 게 분명하겠지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진입통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사항들을 2가지 레벨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해 왔습니다. 하나는 프로페셔널한 단계와 입문단계를 두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용기를 얻고 도전해서 참여할 기회를 얻는데요. 그렇지 않고 정말 잘하고 우수한 인력들만 보내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여겨지는 부분이라서요. 이것들을 조금 조정해 볼 의향은..... 여기에서 조정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향후에 제도 자체를 전문가 부분과 입문 부분 등으로 조정해서 관문을 넓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이자 건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답해서 추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보통 지원에서 수월성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부분이 있다면 청년지원이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추천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청년예술가가 성공을 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청년의 경우에도 이렇게 수월성지원으로 일관하는 것은 대상을 고르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그 문제제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생태계 유지 차원에 있어서 예컨대 지역안배나 장르안배, 성에 관한 안배가 잘 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다양성지원을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맞나요?

**전고필 위원** : 예, 맞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일단 예술인력양성부장의 답변을 듣고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이번 사업은 지역할당제나 장르에 대해서 하지 않고 통합심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자문을 받고 사업개선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답을 한 것이니까 실무 쪽에서 대안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태림 위원** : 예,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쭙보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심의대상 57건 중에서 27건이 선정되었으면 선정률은 낮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모두 수도권이 선정되었고 비수도권이 8개 사업 정도가 되는데 비수도권은 하나도 선정되지 못했잖아요?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후로는 지역최소보장제를 심의 때 가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 최소보장제를 어떤 경우에는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기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질문이 2가지인데요. 이 사업에서 지역할당제가 적용되었는지 여부와 안했다면 왜 안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지원사업에 따라서 지역할당제를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는 구분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먼저 전자의 질문은 오영주 본부장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영주 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저희 청년예술가해외진출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59건 중에서 수도권이 50건을 신청했고요. 비수도권이 9건 정도가 지원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지역최소보장제는 국제교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월성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월성 위주로 뽑는 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외에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교류사업의 경우에는 최소보장제에서 제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국제교류 쪽이기 때문에 최소보장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도 최소보장제

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라도 괜찮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뽑아 달라고 심의위원들에게 말씀드리기는 하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이 9건밖에 지원을 안 해서 뽑기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상적인 범위라면 4건 정도는 지역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분류를 해 보셨나요? 분류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보셨죠?

**홍태림 위원** : 국제교류 사업이기 때문에 수월성을 중요하게 봐서 지역최소보장제를 적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수월성을 전면에 부각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싶고요. 이번에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지역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이런 사업들에서 지역최소보장제 같은 것을 통해서 지역이 중앙의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에 수월성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월성 차원에서 중요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지역의 역량이나 경험이 축적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적어도 청년사업 관련해서는 수월성보다는 최소보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깊게 살펴봐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현재 예산과목 구조를 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 쪽 사업들이 예술창작지원이라든가 국제교류 사업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전부 다 예술인력육성 쪽으로 해서 청년사업들을 같은 예산구조 속에 놓고 청년이라든가 신진예술가에 대한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구조 작업을 할 때 기재부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교류 사업이 아니라 청년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는 사업구조를 조정하는 작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직무대행의 보고를 포함해서 정리를 하자면 현재 올해 심의결과는 비수도권이 단 1명도 없네요. 단 1명도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게 청년사업이라면 수월성 중심의 심의보다는 지역안배 차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과는 이렇게 논의가 된 대로 받는데요. 내년도 사업을 설계할 때는 사무처장직무대행이 말을 한 대로 지역최소보장제 영역 내에 들어와서 설계해 달라는 요청으로 알고 내년 사업과 유사 사업이 올해 연도 중반에 계속될 경우라면 그것을 받아줘야 한다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홍태림 위원님께서 지역순회로 굉장히 여러 곳을 다녀오셨을 텐데요. 아마 거의 성토장이었을 겁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역을 이렇게 버려둘 수 있느냐?”라는 불멘소리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정정숙 위원님, 전고필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장인 저도 지역문화 근거가 명확한 위원회의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 사업들이 왜소해지는 것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송구함이 있었는데요. 현장소통소위 차원에서 전국 지역순회를 해서 의견을 듣는 것도 매우 귀중하지만 그 자리가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도 미루어 생각해 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저는 이 자리를 늦게 받아서 지금 봤는데요. 타이틀이 청년예술가 해외진출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에서는 저희가 유의를 해야 될 것이,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못 받아서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외와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청년예술가 해외진출지원이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시는 청년예술가들은 해외와의 네트워크나 인포메이션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지원신청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홍태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안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분야의 장르로만 구분을 하셨는데 기획 등으로 해서 뭔가 분야를 하나 더 나눠서 그런 네트워크가 없는 분들도 할 수 있는 어떤 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외국과 네트워크가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국내 기반으로만 계속 활동하셨던 분들에게는 이런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장벽 자체가 되게 높게 느껴질 수 있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저희 위원회가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이른바 플랫폼을 안내할 수 있는 체계나 시스템은 있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역이라는 것은 정보에서부터 뒤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국제교류 같은 데에서는 아마 우량한 사업안을 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안 자체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럴 때 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거나 지지할 수 없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지역 할당제를 지키라고 요구를 한들 그것이 큰 효과가 없을 수 있거든요. 아마 그 점을 박경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듣고 정리수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를 관장하는 공연창작본부장님이 이야기를 보태줄 수 있으면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청년예술가 대상 사업으로 청년예술가지원사업과 청년예술가해외진출사업 등 2가지가 중간에 생겼는데요. 이 부분을 그냥 일반적인 기성 예술가들과 같이 경쟁하게 하는 구조의 한계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술인력육성사업인 아카데미 사업이라든가 청년예술가사업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들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전략개발팀이라든가 예술인력개발원과 함께 예술인력육성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 전략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과 같이 설계하면서 단순한 지역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리하겠습니다. 지원사업심의결과인 만큼 지원사업심의결과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이 논의가 된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것과 나란히 병행해서 사무처장직무대행이 이야기를 한 대로 사업의 구조개편을 진행하되 위원회가 제시한 2가지 의견인 지역과 다양성 유지차원과 생태계 유지차원의 고른 선정이 되도록 체계나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요청과 국제교류이니만큼 지역이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위원회 내의 체계나 시스템을 동원해 달라는 2가지 요청을 받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까 합니다. 이외에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논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지금 확인이 잘 안 되는데요. 지금 다수가 손을 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적

인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청년예술가 해외진출지원사업 심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2021년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지원 사업 추진계획(안)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끝난 이후에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사전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마저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숙 문화예술후원센터장** : 현장네트워크지원 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공공-민간 문화예술 후원 매개·협력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립하고자 하며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공동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후원 매개 조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예정이며 사업의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후원 매개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후원자 발굴·유치·예우 등에 대한 후원 매개 활동 및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신청자격은 지역문화재단 및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까지는 민간의 후원을 받아서 매칭 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으나 2020년도에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민간 후원 발굴 및 유지 활동에 대한 기금지원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사업은 공모로 진행하고 심의기준으로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 40%, 사업수행역량 30%, 사업 확장성 30%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접수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지원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지원심의 결정은 22일 또는 23일에 추진하여 25일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고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안건번호 제880호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지원 사업 추진계획(안)에 관한 기본보고를 받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사전의견서를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답변을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숙 문화예술후원센터장** : 예,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보내주신 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명칭에 대한 변경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에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면서 사업명칭에 대해서는 변경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년도부터는 사업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당장은 사업명을 변경할 수는 없는 건가요?

**조미숙 문화예술후원센터장** : 공고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요.

**박종관 위원장** : 공고를 해야 하는 입장이지 공고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미숙 문화예술후원센터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 나왔죠? 어떤 대안을 내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길기는 합니다.

조미숙 문화예술후원센터장 : 예. 그래서 지원 매개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업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문의를 하셨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컨대 ‘오작교프로젝트’라고 하면 이해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른바 사업명칭을 알기 쉽게 바꾸자고 하는 좋은 취지면 어떤 사업명이 제시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어떻게 제시를 하셨나요?

조미숙 문화예술후원센터장 : ‘지역문화 후원 매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정정숙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명으로는 마치 예술인 간 혹은 예술단체 간 협력네트워크 사업도 가능한 것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원자와 관련된 매개 사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사업명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던 것이고요. 만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작교사업과 같은 개념이 조금 더 이해하기도 쉽고 가독성도 높다면 어떤 식으로 해도 좋고요. 사실 이 제목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포괄적이라서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저는 한계라고 느꼈던 겁니다. 저는 변경 자체를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이대로 하고 차기년도부터 변경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여쭙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재 위원 : 저도 정정숙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이 제목으로는 내용이 추정되지 않아요. 이 제목으로 공모를 보고 들어가서 이 내용을 보면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실 후원 매개물 플랫폼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목은 그렇게 읽히지 않고 누구나 예술협력네트워크와 관련된 것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즉각적으로 명칭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적절한 대안이 있으면 저희가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요. 그런데 문제제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사업명을 가지고는 내용도 담보가 안 되고 사업도 효과적으로 설명되지가 않는다.”, “적합한 다른 이름이 있으면 쉽고 의미가 통하는 사업명을 찾아보자.” 그런데 즉시 대안을 내지 못하면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니깐요.

이원재 위원 :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점이 전달되었으면 사무처에서 수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용은 의결하고 제목은 수정해서 공고를 낸다는 것으로 의결하고 그 부분은 이후에 사무처와 위원장님이 상의해서 내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지금 이원재 위원님과 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숙고해서 본부 내에서 검토해서 공고 전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만 공고를 언제쯤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6월 초인데요. 내용이 크게 수정되지 않고 제목만 수정되는 부분이니까요. 아직 위원장님 결재까지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쯤 수정 결재를 내고 위원장님 결재를 통해서 수정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래서 만약 새로운 안이 있으면 즉시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그러면 사업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위임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수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제가 일단 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되, 새로운 안이 있으면 즉시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이 부분에 위원회 전체의 힘이 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을 받을까 합니다. 논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안건은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공모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양한성 국제교류부장이 그동안 심의 진행을 하느라 애를 썼는데요. 이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마치면 위원님들께 보내주신 사전의견서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예, 2021년도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으로 레지던스 등 4개 유형사업에 대해서 별도공모로 진행한 것에 대한 지원대상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총괄표로 장르별 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총 282건 신청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 123건으로 44% 정도의 선정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27억 8,320만 원을 지원결정했습니다. 총 공모예산은 29억 4,600만 원이었고 소폭의 잔여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불용되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후보를 선정해서 해외 현지 주관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후보를 전달하면 최종 1명을 선정합니다. 여기에서 가 배정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시의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각예술분야, 연

극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마이너스로 표기된 부분들은 저희가 장르별 순차적으로 심의를 하다보면 잔여예산을 다음 순번의 분야로 이월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분야의 잔여예산이 다음 순번인 무용분야에서 소진하였음을 밝힙니다. 그래서 상식상 마이너스로 되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저희가 2월말 전체 공모계획을 의결해서 3월 8일부터 한 달간 접수를 받았고요. 저희가 채택전수검토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대면검토심의를 5월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했습니다. 4개 유형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예산은 하단에 보시는 내역과 같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2건에서 결격을 제외한 270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요. 지원신청 접수결과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의기준은 당초 저희 공모요강에 의결하셨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23페이지 심의위원 구성 경과인데요. 저희가 전담심의회위원제를 적용했습니다. 남북문화예술 교류지원은 장르통합심의로 해서 분야별 1인씩 7인으로 구성했고 나머지 장르별 심의유형에 대해서는 분야별 5인씩 구성해서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위원님들과 1배

수씩 총 2배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섭외·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심의결과는 24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페이지 수도권과 지역의 신청률은 지역최소보장제 적용 대상사업은 아니지만 참고용으로 내역을 정리해서 자리에 실어봤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비율은 비등한 차원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한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의결을 해 주신다면 최종 심의결과는 6월 2일 수요일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붙임을 보시면 세부적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텐데요. 기억하시겠지만 2월달에 공모계획을 의결할 때 국제예술확산지원과 예술국제교류지원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코로나 등의 변수로 인한 사업포기에 대비해서 아예 신청단체가 자율적으로 플랜B로 대안사업에 대해 양식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접수를 받았고요. 예산까지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는 투트랙으로 본사업과 코로나 대안사업에 대한 예산까지 배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의 신청을 안 했거나 미제출로 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포기를 하거나 혹시라도 단체가 연도 중반에 사업변경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전담심의회위원제를 충분히 활용해서 서면 심의 등을 그때그때 활용해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변경에 대한 서면심의를 건이 너무 발생해서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변형된 시스템을 적용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타 심의총평이 나오는데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심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서면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정숙 위원님께서 2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천천히 보고를 해 주세요.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예, 알겠습니다. 정정숙 위원님께서 2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교류지원 분야별 예산 배정액의 기준과 합의과정을 물어봐 주셨고, 장르별 비율도

명기되기를 요망한다고 해 주셨는데요. 일단 배정액의 장르별 비율 명기는 위원회 회의 직전에 저희가 최종 버전을 메일로 보내드렸는데요. 수정·보완해서 장르별 비율을 명기한 부분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예산배정액 기준은 근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텐데요. 저희가 전년도 지원결정현황과 금년도 지원신청현황을 5대 5정도로 해서 전년도 지원결정의 4대1대4대1로 얘기를 하는데요. 전년도 지원결정액의 40% 그리고 전년도 지원결정건수 10% 그리고 금년도 본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신청금액 40% 그리고 지원신청건수 10%로 해서 가중치 100%로 해서 구간별 나눠서 안배를 했고요. 장르별로 편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20% 정도는 일괄 균등배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4대1대4대1로 해서 최대한 장르별 균형안배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심의계획을 위원회 내부 결재를 통해서 위원장님의 컨펌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시스템적으로 정착이 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부 사업별로 지역의 경우 신청을 하지 않고 선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7개 항목이라고 하면 7개 분야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레지던스는 4개 분야, 국제확산지원은 3개 분야가 신청을 안 해서 선정이 안 될 수밖에 없었는데. 아까 지역최소보장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 일반공모사업이고요. 그래서 신청환경 조성이라고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사업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할 수 부분은..... 저희가 이해가 좀 안 되었던 워딩인데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소보장제 의무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역의 선정비율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역의 실정 등을 최대한 감안해서 비슷한 역량이라면 최대한 지역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연하게 각 분야별 심의를 진행하는 선에서 최대한 적정수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태림 위원님께서 2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국제교류사업의 일반수용비 사례비 관련해서 책정 가능 유무를 여쭙보셨는데 당연히 가능하고요. 원래는 대표자에 대한 사례비를 통제하여 왔다가 오픈을 시킨 전례가 있었고요.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성의 고정경비는 안 되겠지만 안무자라든지 연출 등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사례비로 책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최소보장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국제교류도 예술적 수월성 관점에서 창작산실이나 문학창작기금, 예술창작아카데미 등 예술적 역량을 주로 봐야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용 예외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향유 사업이라든지 공연예술비평 같이 수월성이 아닌 단체의 의지나 사업만 보더라도 판단이 가능한 사업들은 지역최소보장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단체 중 문학 분야의 '와우책문화예술센터'에 대해서는 최근에 대표자의 작고로 인해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문학심의회가 5월 7일에 있었는데 그 직전에 알게 된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이 단체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단체의 성격상 대표자는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사업의 역량이라든지 사업계획 실현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9월과 10월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안 계시지만 그 사이에 정비를 해서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특이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단체와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결격사유는 대부분 지원신청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다른 유형사업의 신청서를 첨부했거나 초청장 등의 필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긴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의견을 굉장히 많이 내 주셨는데요. 답변이 부족했거나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선 위원** :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해외레지던스 사업 같은 경우 전통은 아예 신청자가 없었나요?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예. 신청이 없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장르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은선 위원** : 그리고 41쪽에 전통분야 4건에 대해서 '신노이'가 2개가 있는데요. 1개는 물론 예비이기는 하지만 2개가 신청가능한가요?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공고요강 자체에 세부 2개 유형에 대해서 각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습니다.

**유은선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여기에 보면 레지던시에 문학이 하나고 전통은 전혀 없잖아요? 지정해 놓고 하는 해외레지던시가 시각과 공연예술, 연극으로 되어 있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레지던시가 하나의 장르로 되어 있지 않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도 제가 리서치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공연과 문학, 시각이 같이 있는 레지던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문학파트나 전통파트나 다른 파트 등이 파트에 상관없이 레지던시에 신청하고 그쪽에서 장르를 구별해서 뽑지 말고 그 안에서 뽑는 식으로 하는 레지던시가 추후에 추가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료는 제가 추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예, 일전에 박경주 위원님께서 저와 통화를 하신 것 같은데요. 다원 쪽이나 장르 종합적인 문화일반 그리고 문학이나 전통에서 발굴의 여지를 저희도 느껴서 풀이 축적되면 새롭게 발굴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정숙 위원** :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국제교류는 아까 말씀드린 청년예술가 해외진출사업과 유사한 거였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국제교류와 관련된 수요는 좀 있지만 사실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성과공유회 등을 기획해서 하게 되면 성과를 공유할 때 지역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방법론이라든지 묻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학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류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터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보충되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제안한 프로그램들이 예술인들의 자율적인 창작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문화예술위원회가 앞서가는 또는 개입하고 이끌어가는 문체제기가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와 관련된 지역의 수요를 조금이라도 반영한다면 자율적으로 알아서 지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전에..... 교류하신 분들이 성과공유회를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워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양한성 국제교류부장 :** 좋은 말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피드백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전체적으로는 지역최소보장제를 시행한 이후에 이게 과연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가를 묻게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뿐만 아니라 이른바 수월성이 분명히 근간이 되는 창작산실이나 다년간 지원하는 사업 같이 수월성이 근간이 되는 분명한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지역최소보장제의 의미가 그 부분을 제외하고 국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대되어야 할 여지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근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단순히 신청률 대비 지원율보다는 국제교류의 경우에는 어떻게 정보의 사각지대이거나 생태계 유지의 곤란과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역문화 차원의 부양책을 쓸 것인가를 비교해야 하는데요. 다만, 저희의 지원사업이라는 게 심의하여 순위를 정하고 발표하는데 머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로부터 이런 질의가 사전에 있었고 대안을 찾아주실 것에 대한 요청이 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인데 배정액을 나누는 기준이 2000년대 이전에 이미 이 전통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보통 4대1대4대1로 얘기를 하나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체위원회 위원님들 차원에서 설명도 필요해서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 4대1대4대1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다. 보통 작년도 집행액과 올해 신청액을 근거로 장르별 안배를 하는 기준인데요.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문화재단도 이것을 응용해서 분배하는 우리나라 지원제도의 룰이거든요.

**정정숙 위원 :** 예, 그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아까 양한성 부장이 보고했듯이 지원의 안정성 측면에서 전년도 지원결정액과 건수를 50% 반영하고 지원신청수요를 반영한 측면에서 당해연도에 신청한 건수와 지원결정액을 각각 4대1대4대1의 가중치를 뒤서 장르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인데 한번 더 장르별 분야에 대한 균형배분을 위해서 4대1대4대1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장르별 안정성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20%를 균등배분하고 나머지 80%에 대해서 4대1대4대1로 적용하는 방식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틀린데 지금 국제교류부는 장르별 균형 차원에서 20%를 기본적으로 배정한 상태에서 4대1대4대1을 적용했다고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죠. 없으시면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본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윤희 전략사업본부장** : 다만 1억 3,800만 원이 잔여예산으로 남아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위원장님께 위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몇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이 간략하게 보고를 한 대로 1억 3,800만 원의 잔여예산 활용에 대해서 평가 등,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목적으로 쓰는 것을 포함해서 이런 용도로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잔여예산 처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되면 수정안이 되나요?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원안을 의결하면서 조건부로요.

**박종관 위원장** : 원안을 의결하되 1억 3,800만 원의 잔여예산을 위원장에게 집행권한을 위임해 주실 것을 개의하여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개의니까 결국은 수정안이네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으로 의결할까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고 모두 찬성하셨으므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마지막 의결안건이 남아 있는 것이죠? 2021년도 문예진흥기금 별도공모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대관료지원지원 사업 심의결과가 또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 적격성 심사를 심의하기 전에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2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안건은 2021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 지원 적격성 심사 결과 및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홍승욱 공연예술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74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적격성 심사 결과 및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사업 안에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으로 있는 사업이고요. 해당 사업의 목적은 공연제작비 부담이 큰 대관료의 일부 지원을 통해서 민간공연예술단체 또는 개인이 안정적으로 후속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방향성 안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예술단체의 피해 경감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설계되어지고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전체 총 사업예산 11억 3,600만 원이고요. 그 가운데 민간공연장과 국공립공연장의 지원비율은 7대3으로 의결을 받아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총 대관료의 90%까지 지원신청이 가능하고요. 단체별로는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75쪽입니다. 지원유형은 크게 보시면 기간 내에 종료된 공연에 대한 대관료를 지원하는 사업들. 올해 사업은 작년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가 되겠고요. 유형②는 기 지급한 대관료에서 미환불 금액 또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공연취소가 명확히 증빙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접수는 4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받았고요. 접수결과는 총 502건이 접수되었고 신청액은 약 230억 규모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원적격성 심사가 추진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네거티브 방식의 지원적격성 심사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 공고된 행정결격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원을 하는 방식이고 행정심사는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그리고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공연장지원센터와 함께 진행이 됩니다.

77쪽입니다.

심사기준은 간단하게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고요. 심사절차 및 내용은 지금 현재 진행된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1차 검토가 4월 21일부터 5월 14일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지원결정에 있어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중요한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명할 수 있는 기간을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두었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5월 21일날 최종 검토를 통해서 오늘 위원회 의결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예산 11억 3,600만 원 중에서 민간에 7억 9,520만 원 그 다음에 공공극장부문에 3억 4,080만 원을 배정하여 진행이 되었습니다.

7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전체 총 575건 중에서 총 지원결정건수는 495건이 되겠습니다. 지원결정액은 11억 3,598만 3,000원이고요. 전체 지원신청건수 대비 결정비율은 86% 그리고 신청금액 대비 결정비율은 49.21%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신청 부적격단체 그러니까 결정된 사업들,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들이 총 80건이 나와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지원심의 결과 발표는 5월 31일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난달에 예술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셨는데요. 그 안에도 같이 해당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정도가 추가 변경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이후에 결과들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유은선 위원** : 이것은 심의위원을 따로 두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심의처에서 서류를 갖고 하시는 거죠?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맞습니다. 사무처에서 필수제출 서류라든가 증빙이 가능한지를 일일이 대차대조를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선 위원** : 전통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신청건수가 적은데 3건이 떨어졌거든요. 제가 볼 때 3건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서류 결격인가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연이 진행되었는지? 그렇게 해서 대관료를 납부했는지에 대한 것을 필수 제출서류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미흡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은선 위원** :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종열 위원님께서 사전질의를 한 것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죠.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도까지는 올해 예산을 받은 것은 25억 원이었어요. 올해 상반기에 기재부와 같이 진행해서 50억을 추가 편성해서 올해는 현재 75억 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기간을 고려해서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2022년도는 코로나 상황의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 25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유란 위원**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신청 부적격단체 및 지원제외대상 80건 중에 서류 미비가 47건이면 굉장히 많은 결격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빙을 받지 못해서 생긴 것인가요?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과 국공립하고 7대3의 비율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단체에는 어떤 공연장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먼저 국공립과 민간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슈가 있었던 내용인데요. 결국 민간예술단체가 좋은 공연장에서 대관해서 진행을 하려다보니 국공립에 많은 비중이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이 “결국 필요한 대관료가 국공립으로 다시 귀속되는 방식이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올해는 전년도에 대략 민간이 65% 그리고 국공립이 35% 정도로 작년에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5% 정도 조정을 해서 그때 위원님들께 의결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70대30

정도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미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대관료를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증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통해서 추가 요청을 했을 때도 그것들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76쪽에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사실 상식적으로 이렇게 많은 서류 미비라는 것은 비정상적이기는 합니다. 이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저희가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납니까? 저희가 지원서류를 받으면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과하게 요구하는 등 행정적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게 핵심이거든요. 아예 자격이 안 되면 당연히 배제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서류 미비가 발생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도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오늘 논의를 해야 될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정된 사업 가운데서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모니터링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공연장의 대표와 공연장을 대관하는 대표와의 관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도저히 증빙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떨어진 건도 있지만 어쨌든 서류상의 문제이고 증빙이 안 되는 내용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갖춰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심사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되지 않은 경우는 대관료지원사업의 목적과는 차이가 있어서 추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 경우는 완화해서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되지 않은 경우와 대관료를 납부했던 통장 등을 추가로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은 건수들이 많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지원을 하는 곳이지 수사를 하는 곳은 아니니까요. 말씀하신 윤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다음 공모 전까지 철저히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다른 위원님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저도 질문입니다. 신청액과 결정액에 있어서 비율이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미만을 신청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70% 정도를 결정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미만은 100% 그리고 500만 원 미만은 몇%.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이런 비율을 정하셨는지? 100%는 없는 것 같고요. 50%를 약간 상회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비율의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년도에 설계가 된 사업인데요. 90%와 10%에 대한 간격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정숙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원금액 대비 지원의 비율들을 조금 더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사무처에서 검토해서 다음 사업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제가 아는 것까지 답변을 드리고요. 만약 제 답변이 틀리면 다시 정정숙 위원님께 전화를 드려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대3으로 해서 총량 11억 정도를 나눠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후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대관료는 납부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1억을 7대3으로 하면 민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7억 정도가 나오면 결격사유가 없이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 룰을 적용하다보니까 작은 것은 굉장히 적은 곳도 있습니다. 다만, 주로 뮤지컬이 많이 가져가는데 1개 단체에 최대 3,000만 원은 정해놓았습니다.

**정정숙 위원** :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시죠. 없으시면 논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의결순으로 들어갈 텐데요. 원안대로 의결할까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반대하는 의견이 없고 찬성을 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이제 마지막 의결안건인 문예진흥기금 별도공모 2021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승욱 공연예술부장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2021년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주요 진행 경과와 2021년도 별도공모 추진계획(안)이 2021년 3월 26일 확정되었습니다.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이 되었고요. 본 사업의 목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초예술행사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의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장르별대표공연예술제(3년간 연속 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 발굴을 통해 민간단체의 공연예술제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공연예술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그러니까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유형은 크게 장르대표공연예술제와 우수 공연예술제로 되고 특징은 3년 연속지원과 단년지원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지원규모로 장르대표공연예술제는 3억 이상 10억 미만, 그 다음에 우수공연예술제는 5,000만 원 이상 4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전체 총 지원예산은 61억 5,900만 원인데요. 그 가운데 2020년도에 장르대표공연예술제로 선정된 4개 사업이 15억 6,500만 원입니다. 모두 작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전년 동’으로 결정돼서 지난 회차 때 의결을 받았던 내용이라서 2021년도의 실질적인 공모예산은 45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심의를 위해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방식들은 「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기준」을 준수해서 적격자 지정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통합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5개 장르별로 12인씩 구성해서 총 60인의 후보자가 나왔고요. 2단계, 3단계, 4단계로 섭외순위에 따라 진행해서 아래 표에 보시듯이 총 15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올해는 연극, 뮤지컬, 음악, 전통예술 그리고 무용과 올해 신규로 들어온 다원예술 분야까지 구성이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여성, 신진, 지역 구성 비율은 표를 간단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대략 53.3%, 신진 33.3%, 지역 26.7%가 되겠습니다. 심의기준은 표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의 충실성 40%, 사업수행 역량 40%, 사회적 역할 20%로 되어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분야별 예산배분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아까 국제교류부 방식과 동일하게 자원을 배분해서 표와 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당초 배정했던 45억 9,400만 원의 예산 배분액 중에서 총 3건이 심사까지 포함해서 결격되는 사항이 있어서 총 108건으로 다시 한번 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8건 심의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46건이 선정되었고 지원금액은 45억 9,4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주지할 사항이 있는데요. 전통예술 분야의 선정단체 중에서 ‘○○○○○○○’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 공모 때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지역대표공연 예술제로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심의 중까지는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고 현재도 심의 중에 있는데요. 경남지역대표공연예술제의 결정현황을 파악해서 조건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논의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지역최소보장제가 적용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행사지 기준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32.6%가 적용되었고요. 최소비율은 28%로 되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6월 2일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6)번에 논의사항이 있는데요. 두 번째 동그라미부터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대표공연예술제로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는 ‘○○○○○○○’ 사업 1건과 음악 분야의 선정 사업 중에서 3건 정도의 사업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단순 정기공연의 사업들과 우수공연예술제면 3회 이상의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사무처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의심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심의 때도 심의위원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결정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중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으로부터 쟁점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오늘 심의는 음악분야 3건을 포함하여 심의위원님들이 당초 결격 사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회 내에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결정으로 인한 예산이 남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때 애로사항이 2가지였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하나는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문체부로부터 이 사업을 이관 받아서 문화예술위원회가 사업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016년도는 3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모가 있고 또 하나는 '지정공모'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산서에 아예 박히는 겁니다. "무슨 행사에 얼마." 세 번째는 국회에서 소위 말하는 국회 지정사업, 쪽지사업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지정사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지정공모를 하지 말고 모두 완전공모로 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적용을 했어야 하는데 2019년도에 적용하지 못하고 2020년도에 적용을 했고 올해도 적용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기존에는 지정공모였던 것이 향후에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완전공모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심의에 따라서 가부가 지속성으로 결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액입니다. 예산규모가 작년대비 올해 공모예산만 보더라도 8억 1,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순전히 공모하는 부분만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이라도 작년대비로 한다고 하면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더 나가서 기금운용계획(안)에 한도 외로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논의를 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지침 상 놓지 말라고 해서 결국은 마이너스 6억으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대비 마이너스 6억으로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되면 불가능하다고 사무처에서 검토하고 있고 6월달에 기재부로 넘어갔을 때 어쨌든 눌러보자고 하는 어필을 우리 사무처에서 해 보자는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2021년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심의에 대한 결과보고와 본부장의 쟁점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사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초공연예술행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주요한 추진방향으로는 2020년부터 시작된 장르대표공연예술제를 통해서 안정적 지원을 지속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공연예술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의 실질적인 규모를 정해서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설계였습니다. 올해 총 111개의 사업이 신청하고 보고를 받으신 대로 연극, 뮤지컬 분야의 장르대표 사업 2개와 우수공연예술제 44개 등 총 46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년도에 선정된 장르대표 4개 사업을 포함해서 총 50개의 사업이 선정된 것인데요. 이게 2020년도에 총 65건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총량에서 15개의 사업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는 전년대비 예산의 감소 영향도 있었고 적정한 지원범위라고 이야기 하는 지원방향선 같은 것들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만듦으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는 지원심의운영에 관한 처리기준에 근거해서 심의체계와 절차에 따라 사업별 지원대상사업과 지원금액을 최종 심의·확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게 논의를 3가

지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원안의 수용 여부에서 지원대상 결정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특정 분야 3개 사업과 중복성 여부가 있는 사업에 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할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른바 전년도 대비하여 원안수용의 테두리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사전 질의에서도 박경주 위원님과 정종열 위원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전체 예산의 감축과 지원신청액 대비 적은 지원액에 대한 문제가 향후에도 계속될 확률이 있는데 추후 예산의 정상화와 타 장르와의 안배를 통해 정확한 예산 조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른바 정기공연 사업을 걸러낼 수 있거나 중복성 여부를 심의하거나 적합한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려를 하기 위한 제도나 시스템은 없는가? 또 다른 한편으로 공모지원에 명시된 3년 이상의 연속 공연예술제 진행기준은 어떻게 수립하고 실천하며 지정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의견이 있었는데요. 지금 문제제기를 하신 향후 대책 등 3가지로 논의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겠습니다.

**정유란 위원 :** 지금 제가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원심의 총평을 살펴봤는데 전체 의견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단위가 큰 행사의 경우 결정된 지원금만으로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심의위원이 기록해 주셨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내용과 “앞으로 사업예산액이 큰 대표지속사업의 경우 심의 카테고리를 달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라는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이번 사업심의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사전에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쨌거나 지정공모가 들어온 2020년 이후의 적용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작년과 달리 사업예산 8억 이상 감액된 부분 안에서 공연예술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일단체 단일사업 이라고 볼 수가 없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행사의 진행에 따라서 몇 천 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단순하게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의 조정을 단순하게 볼 수 없고 조금 더 섬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예산이 사전에 설명해 주신대로 뭔가 문제점을 가질 수 있는 예상치가 존재했을 때 외부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어쨌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심의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대안을 찾을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심의가 진행되고 사업이 결정된 상황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많이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연극위원이니까 연극의 사업수행을 한 단체를 봤을 때 여기 심의위원들이 얘기해 주신 대로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관계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 부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논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따로 요약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홍태림 위원 :** 지금 사안과 관련해서 별첨자료2를 보면 대응방안으로 최소지원금 5,000만 원을 받지 않은 15개 사업에 대해서 21% 일괄 감액을 한 상황인데요. 특히 5개 감액된 곳

중에 3곳은 억 단위로 감액이 돼서 감액 조정값을 통해서 감액이 많이 된 곳들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정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일괄 조정을 하게 되더라도 저는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총 사업비 대비 저희 위원회의 기금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에 대한 대비는 따져보고 차등 감액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시경 본부장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충격적인데요. 올해 대한민국공연예술제 관련해서 한도 외로 넣지도 못 했고 올해 8억 가까이 깎여 있는데 올해 대비 마이너스 6억을 또 요구된 상황이라는 게 많이 걱정됩니다. 지금 상황도 많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일반회계나 기금전입금 관련해서 200억이나 300억씩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5월이 지나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장관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원래 20대 국회 때 복권이라든지 문진법이나 체육 기금 관련해서 저희 기금으로 들어오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을 얘기했었는데요. 이것도 추가적으로 국회와 어떻게 협의를 할지에 대해 구체화 하는 움직임을 위원들이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의견을 3가지로 크게 나누자는 것은 원안 수용여부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데요. 2가지 안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격사유를 명확히 밝혀서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에서 예산을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살펴봐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시 논의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 논의는 첫 번째 논의에 종속되어 있는데요. 결국 크게 보아 큰 폭으로 예산이 감액된 5개 대표사업들의 중요성이 있다는 게 정유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대안을 낼 것인가와 관련한 것이 두 번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올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내년에는 6% 이상 예산이 줄어들거나, 그렇다면 “향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세 부분으로 명확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논의와 관련해서 일괄 조정하는 안이라든가 여기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조금 더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죠. 제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심의가 24일에 이루어지고 밤늦게 끝났다고 합니다. 밤10시까지 심의가 길어지고 그 안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고요.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정유란, 정종열, 장인주, 유은선, 박경주 위원님이 공연관련 위원님이라서 먼저 공연예술부와 본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해서 기본적인 논의를 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그 요청을 한 것에서 일정 정도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심의위원에게 다시 이 부분을 묻는다.”라는 일정한 결론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것이 있다면 첫 논의를 할까 합니다.

**정종열 위원 :** 먼저 결격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분야의 3개 단체가 올라와 있는데요.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결격 여부와 관련해서 먼저 논의를 하려면 저희 실무자와 서류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정리를 하자는 의견이 많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 행정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정종열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그날 논의와 관련해서 논의된 것들은 저희 실무선에서 정회 이후에 같이 보고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열거하자면 앞선 논의의 결론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전례가 있었는지? 또 그게 위원회의 권한으로 가능한지를 포함해서 같이 보고를 받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일단 이 2가지 사안을 가지고 잠시 행정 정리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잠시만요. 결격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가 3가지 정도로 음악분야만 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분야에도 결격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다고 하면 정회 시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앞서 호명한 다섯 분의 공연관련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일반이나 위원장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부분이 있을 테고 당연히 현장의 전문성을 저희가 얻고자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는 것이니까 충분한 의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정회)

(18시 21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긴 시간 정회 상태로 2021년 문예진흥기금 별도공모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는데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께서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예, 정회동안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음악분야의 결격사유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해당되는 3건과 마찬가지로 결격사유로 전통분야에서 추후 다른 시도에서 지역대표로 선정되면 당연히 결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잔액이 2억 정도가 남는다고 하면 이 부분을 예비단체가 아니고 어떻게 줄 것인가는 결정을 안 했지만 결정을 하자는 부분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5월 18일에 1차 심의회에서 결정된 바로 같 것이냐? 아니면 가부는 변동이 없고 5월 18일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일괄 조정해서 같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단점도 논의가 되었는데요. 그대로 가는 경우에는 민간분야의 전

문가로 모신 1차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의 단점은 실질적으로 행사에 배정된 금액이 적어서 곤란하게 되는 몇몇 행사들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부 결정은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만 금액은 1차 심의에서 했던 부분을 통일된 기준으로 두고 조정을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때의 장단점은 민간심의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부분은 분명히 결정이고, 지원사업관리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액 부분을 확정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한은 있지만 이 부분이 초유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심의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지고지순할 수는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위원이 계셨습니다. 또 하나는 연극하고 무용만 5개가 조정을 받아서 약간 회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위해서 기 결정된 부분을 깎아야 하느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관 위원장 :** 긴 논의의 요약은 제한적인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과 장르별 심사, 전체적 상대평가라고 하는 한계로 인해서 2021년도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에 못 미치는 5개 감액사업이 생겼고 다수의 역사성 있는 사업들이 탈락한 아쉬운 결과가 있었음에도 심의결과를 존중한다는 것이죠. 다만, 당초 3월 사업계획(안)을 논의할 때 하한선 5,000만 원을 지원하자고 하는 큰 의미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효과를 보장해 주자고 한 것이었고 지금은 무엇보다 질병 상황이기도 해서 예술계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과 원칙을 어떻게 견지할 것인가에 대한 오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끝에 원안대로 심사안을 받자는 안과 전년대비 감액된 5개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는 선상에서 원안을 어떻게 의결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자고 하는 대안과 관련된 오랜 논의 끝에 일정정도 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정할 것인지와 관련된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의견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표결로 묻고자 합니다. 성안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성안이 부족한지 이렇게 논의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사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의견이 없으시면 심의한 원안을 원안대로 받자고 하는 것을 1안으로 하고 이른바 조정안과 사이에서 어떤 의결을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텐데요. 먼저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한 권한 내에 있는지를 관련 규정을 가지고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예,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 4조 지원대상사업의 결정 내용을 보면 “심의위원회는 지원신청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목적, 지원심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지원대상 사업과 금액을 결정하며 위원회에서 이를 최종심의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서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부 및 금액도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제 10조에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및 지원액 배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순위와 관련된 가부 그리고 관련된 지원액을 결정하면 이 부분의 최종 확정에는 제 4조에 따라서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중관 위원장 :** 예, 관련 법 규정을 검토하셨고요. 일단 원안으로 의결하자는 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대표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찬반 토론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요약해서

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어느 분이 해 주시겠어요? 제가 직접 할까요? 제가 위원장이라서 제가 말하는 것은 좀 그렇기는 한데요.

**장인주 위원 :** 저는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정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존중하고요. 그런데 위원의 권한으로 봤을 때 결정액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부를 뒤집자는 게 아니라 지원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재 위원 :** 제가 의견을 드리면, 저도 현장에 없어서 정회 때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 의견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저는 위원회가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을 번복하는 것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어떻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아까 저는 이시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맥락인지는 알지만 심사위원들과 위원회의 권한 문제로 본다고보다는 심의위원회 의견과 결과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총평에 나와 있는 심사위원 총평이 핵심적인 것인데요.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요청을 하셨잖아요. “결정된 지원금만으로는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라고 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것을 총평에 남기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상당한 검토와 시간을 들여서 논의를 했고 그 전에 공연예술 위원들이 논의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위원회가 심의결과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선정 여부에 대해서 재결정을 하지 않는다.” 존중을 하는데 다만 지원심의 취지 자체가 실질적인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심의 의도와 달리 선정이 되었죠. 그래서 공연예술제가 실질적으로 잘 지원되기를 바랐지만 모순적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사업이 될 수 없는 과대 삭감 결정이 5개 사업에 대해서 선정되었고요. 특정 2개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특정 2개 사업에 대해 논의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5개 사업의 이유는 장르나 사업의 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업액 대비 과대 삭감을 했는데 지원은 결정함으로써 이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액의 재조정으로 의결했으면 하고요. 지원액 조율의 원칙은 첫 번째로 지원액이 증액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진행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을 통해서 지원액을 확보하고 확보된 지원액을 사업액 대비 과대 삭감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집행이 어려워진 5개 사업에 배분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결은 위원회에서 오늘 결정하되 추가로 심의위원들과 협의와 간담회 같은 것들이 진행돼서 합의 하에 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잘 알겠습니다. 홍태림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홍태림 위원 :**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심의 총평 내용 상으로 저희가 대한민국연극제와 국제공연예술제가 결정된 지원금만으로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관계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이야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관계기관은 결국 저희 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에 사업계획을 의결할 때 규모 상 실질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지침을 만들었고 이것이 사업에 작동하는 큰 대전제이기 때문에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증액된 15가지 사업인데 5,000만 원 이상인 사업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를 가해

서 조정을 하고 거기에서 확보된 금액을 실질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없는 곳에 대하여 복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의결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르나 특정 협회의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일자리 문제라든지 창작지원 효과를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특수하게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모은다면 아까 이원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합치된 의견들을 심의위원회에 전달해서 충분한 수기를 거친 후에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의결이 결정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위원과 심의위원 연석회의 같은 것을 제안합니다. 충분히 심도 있는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수순상 먼저 결정하고 만나야 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되도록 수순을 그린다면 먼저 심의위원님들과 위원들이 함께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결을 하고 그 이후에 어느 쪽이 되던 간에 심의위원들과 의견을 나눠보는 추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유란 위원님께서 추가하시죠.

**정유란 위원 :**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던 것을 홍태림 위원님이 정리를 너무 잘 해 주셔서 부연한 내용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까 얘기에서 특정장르나 특정한 것으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지원사업의 본래 목적으로 봤을 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점의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백 위원 :** 위원회 의결권한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결의 권한과 범주에 대해서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논의되는 과정 중에 보면 심의위원들이 선정한 단체나 대상 가운데 반복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까 음악 관련해서 1개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박종관 위원장 :** 이시백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시백 위원 :** 예.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의결은 위원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되 그 결정한 단체를 반복하거나 없던 단체를 집어넣거나 있는 단체를 제외하는 것은 상당한 신중함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 의결의 범주는 금액의 예산 배정이나 조정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정된 단체들을 제외하는 문제는 반드시 재심의를 요구해서 또 다른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지 저희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취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심의에 외부적 영향이 작동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논의에서 우려되는 점을 여쭙보겠습니다. 결정된 것에서 제외되는 단체가 있나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이렇게 결정이 되면 제외되는 대상사업은 없습니다.

**이시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유은선 위원** : 제가 지난 월요일 회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결하고 난 상태에서 심의위원들과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들이 그날 충분히..... 일단 전통 쪽 위원 중에 한 분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의결해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심의회 때 15인 위원이 한 자리에 다 모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르별 위원과 아니면, 물론 그때 정유란 위원님은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장르위원과 심의위원, 사무처가 같이 빨리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의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성안까지 되어 있는데 논의 절차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하셨거든요. 이 문제제기를 먼저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은선 위원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논의수순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정정숙 위원** :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공지가 1~2주가 미루어질 경우에 큰 지장이 있나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현재 이 사업은 사전·사후를 모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이 종료된 사업들이 있어서 문의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사전·사후 모두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1~2주 정도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원재 위원** : 제가 아까 채팅창에 올린 게, 지금 분위기가 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공을 던진 상황이잖아요? 저는 자꾸 공회전이 되는 느낌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결내용을 주문내용으로 드렸는데요. 아까 그런 취지와 방향으로 조정한다는 것을 의결하고 심사위원들과 협의를 하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결이 없이 다시 만나게 되면 아까 보고하신 마치 재심의라든지 심의의 프로세스를 다시 받으면 더 복잡해 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입장이 모아지면 의결을 하고요. 그 의결이라는 것은 이런 조정의 의지를 의결하는 것이고요. 양해나 협의가 진행된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결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심사위원들을 만난다면 더 복잡해지죠. 책임은 위원회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원칙을 가지고 심사위원 모두를 만나지 못한다면 만나지 못한 분들과는 따로 소통을 하고요. 장르별로 소통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의 절차, 협의의 절차는 중요한 자세인 것 같고요. 다른 재단에서도 많은 전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심사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심사에 대해 전체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전달을 통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오늘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유란 위원** : 오늘 의결을 진행하고요. 유은선 위원님, 장르별 심의위원을 만나서 잘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심의 총평이 연극 장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심의 총평에 언급된 코멘트입니다. 2개 사업은 그 지원액을 가지고는 어렵다고 전체 총평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극 분야에서만 검토된 것이 아니라 전체 심의위원들이 심의 총평에 대해서 공유하고 인지하신 상태일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언급이 되더라도 전혀 연관성이 없는 상태로 저희의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면 심의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죠. 재심의를 요청한다거나 이를테면 당락의 문제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심의의 결과를 존중하되 5개 사업의 지원금과 관련한 재조정과 관련된 부분만 의결하는 것이기는 한데요. 이 사안에 대한 설명이었고 제 의견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전까지 포함해서 문예진흥원 때에도 심의와 심의결과는 늘 있어 왔을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정정도 그런 심의가 모든 이를 만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번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쉬운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심의는 예술가 동료심의를거든요. 그리고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시는 건데 기획서도 예술가가 작성하고 그것을 심의하는 분들도 예술가의 대표로 선정된 분께서 심의를 하셔서 일정정도 심의결과를 낸 거라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례상 단 한번도 심의결과를 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기도 했고요. 물론 위원장은 부의할 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시오”라고 전제하고 의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저는 요청드리는데 바이고 새로운 개의안을 내신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다면 토론을 계속 할 것이고 아니면 의결절차로 들어갈까 합니다. 유은선 위원님, 논의수순도 의결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유은선 위원 :** 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저는 그 부분을 명확히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린 안은 수정안이 될 텐데요.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은 장르나 특정 단체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하나의 전제는 재심의라든지 심의위원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결정에 따른 조정에 대한 결정이라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정의 수정안을 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총평에도 나와 있듯이 사업집행을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집행될 수 없는 지금의 조건들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안한 것이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을 1안으로 하고 논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을 1안으로 하고요. 작년대비 선정된 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심각하게 부족한 현상이 발견된 것이 무용도 있고 연극도 있나요?

**정정숙 위원 :** 잠시만요. 지금 그런 분야를 언급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박종관 위원장 :** 작년대비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조절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음악분야의 모 사업은 3년간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위배되어서 배제함이 바람직하다. 우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의결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의(안)인 5개 사업을 조절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인가를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동의하는 분은 의사

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해야 하나요? 조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주 위원** : 위원장님, 조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장** : 실무 쪽에서 정리를 해 주세요. “심사위원이 의결한 심의안을 존중하되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심각하게 부족 현상이 생겨 총평에도 언급한 5개의 사업에 대하여 일부 사업지원액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실무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정안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셨으니까 본부장님이 확인을 해 주세요.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정리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안인 조정안을 말씀하셨고요. 가 결정된 사업 중에서 2020년도 대비 지원액이 하향된 5개 사업이 지원액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유는 3월 26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시한 실제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한 요청에 부합하도록 하는 조치로서 조정이 방법은 5,000만 원을 초과해서 지원 받는 지원결정사업. 단, 2020년도 장르대표로 확정된 사업과 그다음에 최하 지원액으로 제시한 5,000만 원 결정사업은 제외를 하고요. 5,000만 원 초과 지원 받은 결정사업의 조정률과 2020년도 기준 대비 지원액이 하향된 5개 사업에 2020년 확정액을 기준으로 한 삭감률을 같게 하여 조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의결부터 다시 진행을 할 텐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지원심의 결정의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미의 의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심의 결과를 깊게 존중하며 해당 심의위원들이 총평을 통해 제기한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이 현재 결정된 지원금만으로는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내용의 대안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과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결안을 마련하였다. 본 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선정 여부를 존중하여 선정사업의 가부에 대한 재결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1년 본 지원심의회 당초 취지였던 실질적인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심의 의도와는 달리 선정되었으므로 사업액 대비 과다 삭감 지원결정된 5개 사업지원에 대해서 지원액의 조율·재조정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의미를 삼기로 하였다. 지원액 조율의 원칙은 지원액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 감액을 통해 지원액을 확보하고 확보된 지원액을 사업액 대비 과다 삭감되어 실질적으로 사업집행 자체가 어려워진 5개 사업에 배분하여 지원하고자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본 의사결정과 의결사항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 받아 성실하게 심의를 진행한 심의위원들과 추가로 충분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심의과정에서 확인된 예산 삭감 등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향후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다양한 방위의 방법을 찾을 것이며 현장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소통하며 현재 예산구조와 지원구조를 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이원재 위원** : 개정(안) 안에 총평의 요청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총평의 요청이요?

**이원재 위원** : 그것이 참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총평의 요청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이원재 위원** : 자구를 제가 다시 확인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록될 때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심의 결과 의견을 존중하며 해당 심의위원들이 총평을 통해 제기한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대한민국연극제는 결정된 지원금만으로는 사업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원재 위원** : 아니요. 인용문 그대로입니다. 총평 인용문 그대로요. 심사위원들이 준 총평 그대로요.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총평을 통해 제기한 대한민국연극제와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결정된 지원금만으로는 사업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내용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깊은 고민과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원재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구를 수정해 주시고요.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중)

**박종관 위원장** : 9인이 동의해 주셔서 수정안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음악분야의 모 사업은 3년 연속.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했으면 현재 조건부로 지원된 전통분야의 사업 1건과 음악분야에서 ‘부’하기로 결정한 1건 1억을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고 현재 논의로서 정한 1건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저의 제안은 여기에 똑같이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하면 21.76일 텐데요. 여기에 1억을 넣으면 21.76보다는 %가.

**박종관 위원장** :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모아서 재공고를 할지? 혹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한 가지 방법은 1억을 지금 현재 적용한 것처럼 그대로 간다. 아니면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정하셔서 어디로 가자고 정하실 수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재공모 요청도 있고 범위가 하도 넓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들께 의사를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사무처장직무대행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삭감된 사업예산을 보충하는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가 사업포기 또는 결격에 의한 예산이 생겼을 경우에 기존 삭감된 사업의 완화에 사용한다고 의결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으시죠?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 5. 보 고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7시인데요. 현재 의결안건은 끝났고요. 보고 안건에서 2가지를 반드시 보고 받아야 하거든요. 하나는 소송과 관련한 보고이고 블랙리스트 TF 구성(안)은 논의사항으로 옮기더라도 예술기록원 TF 현황 보고 등은 간단하게라도 들어야 하거든요. 나머지 소위원회 활동 보고는 문건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일단 예술기록원 TF 현황 보고부터 짧게 보고를 받도록 하죠. 장인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장인주 위원** : 본부장님이 계시면 본부장님이 현장에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임주연 아르코예술기록원장** : 예, 제가 상황 상 비디오를 켜는 게 어려워서 오디오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술기록원 활성화 TF는 지난 4월 위원회 정기회의와 5월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예술기록원과 관련된 TF를 하기로 결정해 주셔서 장인주 위원님을 팀장으로 해서 TF

구성을 하였고요. 240쪽을 확인 해주시면 됩니다. 240쪽을 보시면 TF 구성은 위원님 2인과 사무처 3인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위원으로는 장인주 위원님을 팀장으로 하여 정종열 위원님이 같이 참석하시기로 했고요. 사무처 3인은 예술기록원 관계자인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그리고 저와 실무를 담당하는 유병은 과장까지 해서 5인의 단출한 구성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기간은 오늘 보고를 드리고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구성을 하였고요. TF 명칭은 아르코예술기록원 활성화 TF 그리고 TF의 주요 역할은 예술기록원이 현재와 미래 상황을 반영한 예술기록원의 정체성과 역할 정리 그리고 예술기록원 이전 적합 부지와 가능성 검토,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실현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된 활동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TF 역할을 정리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5월 20일 TF 사전 준비회의가 있었고요. 오늘 보고를 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6월 초에 당인리 발전소 현장 방문을 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중요한 회의들을 하고 아르코예술기록원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인주 위원 :** 원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나머지는 문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박경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TF 이름에서 보시듯이 ‘예술기록원TF’라고 간략하게 이름을 정한 이유는 이전을 목표로 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르코예술기록원의 활성화가 목표입니다.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로 이전이 될 수도 있지만 혹시 이전이 되지 못하더라도 지금의 상황보다 더 발전하는 기록원이 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는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따라서 인원이나 조직은 당연히 충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진행경과와 관련해서 본부장이 보고를 하실까요?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오늘 진행되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원고 측의 조정 요청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조정을 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 측에 대한 조정의견을 제출 받아서 5월 17일 재판부에서 조정에 대한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주 내용은 “피고 공동으로 6월 30일까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결정내용으로 통보를 해 왔고 여기에 대해서 문화부 측에서는 이견을 달지 않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도 별도의 이의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고 측에서 조정결정 내용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변론으로 들어갈 것으로 우리 변호사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서는 재조정 또는 화해권고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향후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더 해 주시죠.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판부에서 변론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재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들어보아야 하고요.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이미 위원님들과 소통한 대로 피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에는 재판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는 것으로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조정 혹은 정식재판 절차 등이 있는데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어서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데요. 결정이 되면 바로 위원님들과 즉시 소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6. 논 의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이제 블랙리스트 TF 구성(안)과 관련해서 조금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나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주 위원** : 그간 진행사항은 지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고요. 내용이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6월 3일에 화상회의를 준비하기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때 사무처 참여 등에 대해서 참여하는 위원들끼리 논의를 조금 더 진척시키기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었고요. 첨부한 파일을 보면 ○○○, ○○○ 재판과 관련해서 의견서를 내는 것에 대해서 TF를 준비하면서 이번 회의 때 의결해서 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첨부해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의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식 위원회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소통창구를 통해서 안을 확정하고요. 대신 사무처에 우리 위원들이 연명하여 의견서를 낸다는 부분만 공유하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이 절차를 공유하는 절차로 하고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긴 논의를 마쳤는데요. 혹시 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해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으시면 폐회를 하기 전에 위원회 간담회와 정기위원회 일정을 잡으려고 합니다. 전체위원회는 6월 25일 금요일 2시에 잡으려고 합니다.

**정정숙 위원** : 잠시만요. 제가 기타의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사무처직원들은 일반적으로 나주에 있는 본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간담회는 보통 화상으로 하고 있고 5월 전체회의도 화상으로 했지만 앞으로 대면회의를 하게 될 텐데요. 늘 대학로예술가의 집에서만 하는 것이 저는 좀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2번 정도는 나주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하는 게 어떨지?

**박종관 위원장** : 예, 다만 모두 다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하는 전체회의 대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방역이 풀리면 곧바

로 나주에서 워크숍도 잡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은 최대한 덜 들이는 방향으로 2시에서부터 4시까지 한다거나 해서라도 2번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기본적으로 1박 2일의 행사를 잡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와 상관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장 어려운 것은 예산의 문제 뿐만 아니라 방역의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간담회는 6월 10일과 17일 중에 정해야 하는데 어떠십니까?

(간담회 및 정기회의 일정 조정)

## 7.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께 아주 긴 시간동안 논의를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원만한 회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동의를 해 주시면 이상으로 한 국문화예술위원회 제304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 16분 회의종료)